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1. 일 시 : 2014.01.14(화) 10:00 ~ 11:10
2. 장 소 : 대학본부·경영관 303호
3. 참 석 : 8명(위원장 정태준, 위원 서창갑, 위원 최인수, 위원 강인호, 위원 신두철, 위원 김영봉, 위원 김진호, 위원 박상준)
4. 불 참 : 0명
5. 회의안건 : 1.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논의  
(2014학년도 계열별 등록금/군사학과 등록금/대학원 등록금)  
2. 학교비 예산(안)심의  
(학교비예산/시설비 예산/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부담분 예산)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전년도 본예산 최종추경예산 전기이월금 차이, 전년도 본예산 최종 추경예산 기금회계전출금 차이)

### ◆ 위원장 정태준

지난 1차 회의때 학생들이 요구한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표시된 관련문서를 보시고 위원들은 등록금 책정에 참조해달라라고 하다. 2014학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기획팀장에게 설명해달라 하다.

(예산기획팀장 : 세입부분에서 등록금은 2014학년도 재학생과 편입학생수를 예측하였고 등록금은 동결로 반영된 상태이며 현재 수입대비 지출이 37억 초과 된 상태이다. 예산기획팀에서는 학내 팀장모임과 특성화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각 부서별로 5% 절감요구를 한 상태이고 위원회에서 등록금결정 상황에 따라 변동예정이라고 상세히 설명하다.)

### ◆ 위원장 정태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달라라고 하다.

### ◆ 위원 김진호

수입대비 지출금액이 차이가 나면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다.

(예산기획팀장 : 보수, 연구학생경비외에는 이미 부서별 예산삭감부분은 대부분 반영된 상태이다. 관리운영비는 우리대학교 적정선이라 여겨지는 85억보다 작게 배정되었으며 회의비, 복리후생비, TF운영경비는 삭감조치 시켰다. 예산이 부족하여 노

후기자재 교체, 특히 전산원의 10년이상 되는 기자재 교체예산은 50%만 반영하여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반면 교내장학금은 오히려 증액시켰다라고 설명하다.)

### ◆ 위원장 정태준

2012년부터 매년 220명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12-13억씩 결손이 생긴다. 올해도 12억 감소되어 2%정도 인상요인이 생긴다. 등록금을 2%정도는 인상해야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 사립대학 재정능력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는 대학도 있다. 우리대학도 재정적 상황을 잘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된다.

### ◆ 위원 김진호

학교는 2%정도의 인상이 있어야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싶다라고 하다.

### ◆ 위원 박상준

예산(안)은 예측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료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전년도 결산액을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예산기획팀장 : 2013학년도 예산집행이 현재 진행중이며 2월말로 회계종료되고 4월정도에 결산이 확정되어 5월말에 공개가 된다. 또한 전년도 결산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다라고 하다)

### ◆ 위원 강인호

지출부분에서 특정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라고 하다

(예산기획팀장 : 사업별 예산배정금액이 함축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은 예산기획팀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라고 하다.)

학생들은 5% 인하를 제시한다라고 하다.

### ◆ 위원 최인수

학생들이 예산기획팀을 방문하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전체예산을 인지하여 다음회의때 논의하였으면 한다라고 하다.

◆ **위원 서창갑**

등록금 5%를 인하하게 되면 학교운영이 어렵게 된다. 학생들은 예산자료를 잘 검토하여 5% 삭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도 함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학생장학금을 확대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규모에서는 장학금 지급율이 양호한 편이며 또한 여건이 되면 지급율을 확대시켜 상위권 대학에 대한 의지도 갖고 있다. 사무처 시설예산 삭감등과 비교해보면 학생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삭감이 적게 되었다는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대학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단과대학예산과 장학금 확대등 교육관련 예산은 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고 하다.

◆ **위원 강인호**

현재 수입대비 초과지출예산은 조정되어야 하지 않는냐라고 하다.

(예산기획팀장: 정원감축 등 등록금수입은 줄어들고 각종 공시지표율 제고를 위한 예산투입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월금이나 적립기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균형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학생위원들이 금일 예산기획팀을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1월 15일(수) 15시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는게 어떠냐고 묻다.

◆ **위원 일동**

전원 동의하다. 폐회시간 11:10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기획처	처장	정태준	정태준
학생처	처장	서창갑	서창갑
사무처	처장	최인수	최인수
총학생회	회장	강인호	강인호
총학생회	부회장	신두철	신두철
총대의원회	의장	김영봉	김영봉
총동창회	부회장	김진호	김진호
전문위원	세무사	박상준	박상준

간사 김승우 (서명)